

罪지은 文士의 懺悔와 辨明*

- 蔡萬植 중편 <民族의 罪人> -

장 양 수**

차 례

- | | |
|--------------------------|------------------|
| I. 序論 | III. 共感 산 罪人の 事情 |
| II. 거짓 없이 털어놓은 暗黒期에 지은 罪 | IV. 結論 |

I. 序 論

우리의 현대 소설사에 있어서 한 두드러진 작가가 분명한 蔡萬植은 상당히 오랫동안 비교적 소홀한 대접을 받아왔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 학계로부터 새삼스레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¹⁾ 이후 가히 부음이라 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1970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 펜 대회에서 그의 문학이 거론된 이후 그와 그의 문학이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후의 그와 그의 문학을 보는 시각도 상당히 호의적, 긍정적인 것으로 그 중에는 日帝 36년 문학적 자산으로 오늘날까지 남은 작품은 廉想涉과 蔡萬植 정도로

* 이 논문은 1998학년도 동의대학교 대학 자체 학술 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됨.

**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1987년까지 韓國의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黃順元과 함께 蔡萬植의 소설이 가장 많이(4편) 실려 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中央日報』 1987. 9. 14.

끝난다고 단언한 사람도 있고²⁾ 70년대 이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현실 인식력이 탁월한 작가라고 한 사람도 있다.³⁾

그러나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가 日帝 치하에서 쓴 諷刺小說을 대상으로 한,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경향을 띠고 있다. 4반세기 이상 작품활동을 했고 작품 양에 있어서도 결코 적다 할 수 없는 蔡萬植과 같은 작가의 문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시기, 특정 성격의 작품에만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의 문학의 전체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한정된 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가 해방 후에 발표한 소설 작품들 중 중편 <民族의 罪人>은 그의 문학 뿐 아니라 韓國 문학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고 따라서 이 소설에 대한 연구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日帝 치하에 對日協力을 한 작가의 참회와 변명을 겸한 소설이다. 日本의 韓國에 대한 식민지 통치란 수난의 시대에 많은 소설가들이 민족에 등을 돌렸으나 해방 후 스스로를 단죄한 작품을 쓴 사람은 거의 없는데 유독 蔡萬植만이 그와 같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또 이 소설에 대한 연구는 시대 상황이 어떤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뿐 아니라 이 소설은 거기서 외압에 의해 의기를 꺾게 된 한 인간이자 소설가의 고뇌와 진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편의 藝術家小說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주로 사회윤리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의 방법론에 의지하여 쓰여졌다는 것을 밝혀둔다.

Ⅱ. 거짓 없이 털어놓은 暗黒期에 지은 罪

白菱 또는 采翁이란 호를 가진 蔡萬植은 1902년 全北 沃溝에서 태어나 日本

2) 鄭漢淑, “蔡萬植의 文學史的 位置”, 『韓國文學의 周邊』(高麗大學校 出版部, 1975), p.43.

3) 金允植 · 김현, 『韓國文學史』(民音社, 1974), p.189.

早稻田大學을 중퇴한 학력을 가진 작가로 1924년 李光洙의 추천으로 『朝鮮文壇』에 단편 <세 길로>가 실림으로써 문단에 나왔다. 그는 1950년 全北 裡里에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적잖은 장단편소설을 발표했다.

<民族의 罪人>은 그가 1946년 5월 19일 鄉里 臨陂에서 쓴 중편소설로 무슨 사정으로 탈고 후 바로 발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1948년 『백민』 16호(10월) 및 17호(11월)에 2회에 걸쳐 분재된 작품이다. 5절로 되어 있는 이 소설은 2백자 원고지 2백 20매 정도의 분량으로 중편 소설로는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한다.

<民族의 罪人>은 작가가 참회록을 쓰는 심정과 최소한의 자기 변명어의 욕구가 포개진 자전적 소설이란 평을 듣는다⁴⁾ 작품이다. 여기서의 참회와 자기 변명이란 말은 일제시대에 이 작가가 한 對日協力과 관련된 것이다.

그가 일제시대에 명백한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민족적 상황의식의 소설을 쓴 작가」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⁵⁾ 蔡萬植은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작가였다. 그러한 면모는 데뷔로부터 1938년 무렵까지의 그의 작가로서의 면모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작가적 면모는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때 그는 3차례에 걸친 변모를 보여 주는데 그와 같은 변모에서 그의 민족주의 작가적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다. 제1기는 1924년 등단 이후 1930년까지이다. 이 때의 그는 작가에의 길 찾기, 文名 얻기에 골몰하여 이 시기에 발표한 그의 소설은 시대상황과 무관하다. 독자는 거기서 異民族의 羈絆에 신음하는 거래의 아픔 같은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던 그의 작품 세계는 1931년 들어 크게 달라진다. 그는 이 때부터 34년까지 식민지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감지하고 <富村> <貨物自動車>와 같은 단편으로 당시의 모순에 찬 현실을 비판한다. 그러다가 193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日帝가 KAPF 맹원을 검거하는 등 문학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 데다 작가 자신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소설에 대해 회의를 느껴 1934년부터 36년까지 2년 동안 작가로서 침묵을 지켜 잠잠적인 절필을 한다. 그는 1936년 작품활동을 재개하는데 이 해부터 1938년 사이에 쓴 소설들이 그의 문학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그는 장편 <太平天下>, 단편 <痴叔> <少妄> 등 현실에 대한 간접 비판, 간접 공격

4) 曹南鉉, 「한국소설의 갈등」(문학과 지성사, 1990), p.276.

5) 具仲書, 「民族文學의 길」(중원문화사, 1985), p.53.

이라 할 수 있는 풍자소설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 때의 그의 소설을 통해 蔡萬植은 日本의 韓國에 대한 식민통치의 반역사성, 모순성을 비판 공격하고 민족의 고유성·독자성을 지키려 한 민족주의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던 그가 對日協力으로 민족에의 지조를 꺾은 것은 1930년대 말에서 해방이 되기까지 5~6년 사이이다. 그의 그와 같은 민족에 대한 체절의 원인은 대체로 그의 니힐리즘적인 정신상황과 개인적인 정황, 그리고 日帝의 회유와 위협이 복합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⁶⁾ 어쨌든 이 때의 그에게서는 특출한 현실 투시력과 韓民族으로서의 의기를 가진 작가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여러 면에서 명백한 對日協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民族의 罪人>은 작가 자신임이 분명한 1인칭 나레이터의 서술로 되어 있다. 해방 후 어느 날 친구의 출판사에 들른 「나」는 마침 먼저 와 있던, 日帝 시대에 굳게 절개를 지킨 지식인 윤을 만난다. 거기서 「나」는 윤으로부터 자신의 對日協力 행위에 대한 심한 비난과 모욕을 당하게 된다. 「나」는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는 한편 자신이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이 소설의 대강의 줄거리이다.

이 소설에서 윤이 주인공을 비난 공격하고 있는 것은 주인공의 두 측면에서의 對日協力 행위이다. 한 측면은 주인공이 강연이나 글로 동족을 상대로 皇國臣民이 되라, 內鮮一體를 실행하라, 지원병·학병에 나가라, 供出을 하라고 하는 등 소위 日本의 走狗 노릇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은 對日協力的인 御用小說을 썼다는 것이다.

먼저, 前者의 경우 蔡萬植은 1943년 御用文人團體인 朝鮮文人報國會의 소설·희곡부 평의원을 지내고 강연, 문필활동 등으로 對日協력을 한 것이 사실이다. 작가는 <民族의 罪人>에서 그러한 전과를 깨끗이 시인하고 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1943년 2월 황해도로 강연을 간 것이 나로서는 아마 대일협력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었었다.

총독부와 총력연맹이 설도를 하여 경향의 종교·사상·예술·언론·조교·교육 등 각계의 사람 2백여 명을 그러모아 전 조선 각군(郡)의 면(面)으

6) 李來秀, 「蔡萬植 研究」(二友出版社, 1986), p.137.

로 하여금 제각기 면단위(面單位)로 열게 한 소위 미영격멸 국민총결기대회에 몇 개 면씩을 쪼개 맡겨 보내어 전쟁기세를 돋구는. 그 중에도 미영에 대한 적개심을 도발하는 - 강연을 하게 한 그 강사의 하나로 나도 뽑혔던 것이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자신이 기어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려 했으면 그럴 수도 있었지만 「대일협력이란 주권(株券)의 이윤(利潤)」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나섰었다고 조금도 숨김없이 실토를 하고 있다. 蔡萬植은 그 강연이라는 것을 하고 다닌 자신에 대해

그러나 계속하여 못사람을 모아 놓고 미국 영국은 나쁜 놈들이요, 일본이 옳고, 전쟁은 시방이 한 고때요, 조선 사람은 어서 바빠 중산을 하고 저축을 많이 하고 하여 이 전쟁을 일본의 승리로써 빨리 끝내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 -

이었다고 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고 있다.

작가는 또 자신이 친일적 賣文行爲를 했다는 사실도 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쓴, '어떠한 우수한 민족이 다른 어떤 우수치 못한 민족에 비하여 보다 높은 지위가 요구되는 것은 마치 성인이 소아에 비하여 보다 많은 식량이 요구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한, '大陸經綸의 壯途 그 世界史的 意義'란 제목을 단 글은⁷⁾ 그 논리에 따르자면 日本의 中國 침략, 韓國에 대한 식민통치는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어 韓民族에 대한 심한 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1943년 8월 3일자 『每日新報』에 실린 '鴻大하옵신 聖恩'이란 제하의

8월 1일로 뜻깊고 감격 큰 조선의 정병제도는 마침내 실시가 되었다. 이로써 조선당 2천 4백만 명의 백성도 누구나가 다 총을 잡고 전선에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될 자격이 생긴 것이다. 조선 동포에 내리옵신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은(聖恩) 鴻대무변(鴻大無邊)하옵심을 오직 황공하여 마지 아니할 따름이다. 2천 4백만 누구 감읍치 아니할 자 있으리요.

7) 『每日新報』 1940. 11. 22.

라 한 글 같은 것은 그것을 읽는 사람의 얼굴마저 뜨겁게 해 주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蔡萬植이 자신의 그러한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어떤 부분을 숨기려 하거나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른 對日協力者들에서는 볼 수 없는 그의 솔직한 면모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민족적 신뢰를 저버리고 훨씬 더 노골적·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李光洙가 해방 후에 보인 태도와는 너무나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李光洙가 그의 친일행위에 대해 전쟁 중에 내가 천황을 부르고 내선일체를 부른 것은 일시 조선 민족에 내릴 듯한 화단(禍端)을 조금이라도 돌리자 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⁸⁾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해외동포밖에 없다⁹⁾고, 국내에서 항일투쟁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끔찍스런 고통을 당한 우국지사들을 모독하는 망언을 하는가 하면 민족 대화합을 위해서는 로마가 인재 감소를 우려해 반혁명분자를 불문에 부치기로 한 원로원 망각법(Act of Oblivion)을 공포했듯, 일제시대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을 불문에 부쳐야 한다고 앞미운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반해 蔡萬植은 두말 없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어 그의 참회는 그의 對日協力을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그나마 일말의 위안을 주고 있다 할 것이다.

<民族의 罪人>에서 윤이란 사람이 더욱 나쁜 것으로 본 것은 소위 시인·작가란 사람들이 그들의 예술을 팔아 친일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이에 대해

“잘하나 못하나 소설이니 시니 해서 예술일 것 같으면 양심의 활동이요, 진리(眞理)의 탐구와 그 표현이 아니냐 말야. 물론 소설가나 시인두 사람인 이상 임으론 거짓말을 한다구 하겠지만, 붓으론 거짓말을 하길 싫어하는 법인데, 또 해필 아니 되는 법인데, 그래 멸절한 거짓말루다 황국신민 소설, 내선일체 소설을 쓰구, 조선 청년이 강제모병에 끌려나가 우리의 해방에 방해되는 희생을 하구 한 걸 감격하구 영웅화하는 걸 쓰구 했으니 그게 예술가야? 예술과 예술가의 이름을 뚝칠한 놈들이요, 뱃속에 가 진실과 선과 미를 찾아 마지 않는 양심 대신, 구더기만 움덕거리는 놈들이 아니구 무어야?”

8) 李光洙, 「나의 告白」, 『李光洙 全集』7(三中堂, 1971), p.282.

9) Ibid., pp.283~8.

라고 질타하고 있다. 작가는 이에 대해서도 깨끗이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있다. 蔡萬植은 이 소설에서 자신이 두 편의 御用小説을 썼다고 하고 있는데 그 중 『每日新報』에 연재, 발표했다고 한 것은 장편 <女人戰記>¹⁰⁾를 말한 것이다.

이 소설은 眞珠(玉洞宅)란 한 여성의 일대기이다. 열두 살의 어린 신랑 俊浩에게 시집간 眞珠는 시어머니 박씨에 의해 시집을 쫓겨난다. 8년 뒤 재혼에 실패한 俊浩는 우연히 眞珠를 다시 만나 동거해 남매를 낳아 잘 성장하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 中佐 한 사람이 眞珠를 찾아오는데 그는 전사한 그녀의 아버지 林 중위와 日本人 여성 사이에 난 유복자로 밝혀진다. 곧 둘은 한 핏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日本의 內鮮一體 구호에 맞춘 이야기임이 분명하다.

<女人戰記>의, 林 중위가 전사하기까지의 이야기 같은데서는 노골적인 친일적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노일전쟁 당시 양군간에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林 중위는 결사 돌격대장을 자원한다. 日本軍의 길전 소장이 이를 만류하자 林 중위는 “소관은 사람은 조선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소관의 마음의 나라는 일본이올시다.” 라고 하고 「장차 우리 조선 동포에게 가르쳐 주는 무엇」을 남기기 위해 기어이 이를 맡아 장렬하게 전사한다는 것이다.

작가 자신 이 소설이 점령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쓴 시국적인 소설이라 하여 御用文學이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 그 줄거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내선일체 사상을 그대로 드러낸 소설」이라는 비난을¹¹⁾ 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강연회 등 친일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그의 소설의 對日協力的 성격에 대해서는 여기서 잠깐 좀 더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女人戰記>의 對日協力的 성격이 다른 작가의 그것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소설은 작가가 1943년 3월부터 10월까지 『朝光』에 연재하다 총독부의 검열로 7회로 중단된(7월호에는 실리지 않았음) <어머니>를 개작한 것이다. <어머니>의 주

10) 이 소설의 제목은 처음에는 <女人戰紀>였는데 연재 98회부터 <女人戰記>로 고쳐졌다.

11) 김상선, 「광복 뒤의 우리 문학 연구」(집문당, 1996), p.412.

제는 고난에 찬 한 韓國 여인의 삶을 그려 보여주려 한 것이다. 등장인물의 이름도 <어머니>에서의 여주인공 「숙희」가 <女人戰記>에서는 「眞珠」로 바뀌었을 뿐, 그 남편은 「俊浩」 그대로이다. 내용도 <女人戰記> 전체 1백 1회분 중 18회 17행에서 45회까지는 『朝光』에 연재했던 것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고 1회에서 18회 16행까지와 46회에서 1백 1회까지를 새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내용 3분의 1 이상을 이 <女人戰記>에 그대로 轉載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거기다 곳곳에 對日協力的인 문구를 삽입하고 새로 쓴 데서 내선일체 시책에 협력하는 장면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女人戰記>가 작가가 끼니를 잇기 위한 유일한 생계수단인 원고료를 얻기 위해 쓴 것이라는 것을 어렵잡게 추측할 수 있다. <女人戰記>를 전형적인 친일문학 작품이라 할 수 있는 李無影의 日文小說 <母>와¹²⁾ 대조해 보면 그 의도의 차이가 얼마나 뚜렷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母>의 주인공은 그 아들이 「나라를 위한 전쟁(태평양전쟁)」에 목숨을 바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량미 증산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자신의 과수원의 과목을 기어이 베어내 버리고 밭을 만들고 있어 그 주제가 바로 「나라(日本)를 위해 기꺼이 하는 조선여성의 희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女人戰記>는 사정이 다르다.

<女人戰記>는 그 주제에서 볼 때 對日協力的 의도에서 쓴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하는 수 없이 對日協力を 한 작품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소설에 내선일체 군국주의 찬양이 작중 상황에 육화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한 말이나¹³⁾ 이 소설이 주인공의 피로운, 고난의 반성이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戰意高揚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한 말도¹⁴⁾ 모두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民族의 罪人>에서 작가가 자신이 썼다고 말한 또 한 편의 어용 문학작품, 소위 「증산소설」의 문제다. 작가에 의하

12) <母>는 1944년 東都書籍 刊 「情熱の書」에 수록된 단편이다. 여기서는 金東里·金炳傑 編, 실천문학사 1987년 판 「親日文學作品選」에 한글로 번역되어 실린 것을 참고했다.

13) 李來秀, op.cit, pp.137~8.

14) 三枝壽勝, 「狀況과 文學者の 姿勢」(慶熙大學校 大學院, 1976), p.144.

면 그는 1945년 5월 총력연맹 문화과의 주문에 따라 平安北道 양시의 알미늄 공장으로 가 거기서 일주일을 묵으면서 자료를 모아 한 편의 증산소설을 썼다는 것이다. 이 소설은 무슨 까닭인지 발표가 되지 않고 말아 작가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혀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는 자신을 속일 수 없어 굳이 그것까지 털어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 결벽증이라 할만큼 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蔡萬植은 이 소설에서 자신은 어떤 형벌로도 속량해 줄 수 없는 죄를 지은, 무슨 말로도 변호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斷罪하고 있다. 더구나 <民族의 罪人>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蔡萬植만이 쓴, 그리고 그만이 쓸 수 있었던 양심적이고 진실한 참회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곧 그는 자신이 민족에 저지른 과오에 대한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이 <民族의 罪人>을 썼다고 하고 있는데¹⁵⁾ 우리는 여기서 그의 결백한 마음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용기를 높이 사주어야 할 것이다.

Ⅲ. 共感 산 罪人の 事情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작가의 또 하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副人物, 출판사 사장은 조목조목 윤에 반박하면서 주인공을 변호하고 있으나 주인공은 스스로 그것이 억지 형식논리에 기울어진 헛되고 웅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가사, 완전히 변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적인 내가 우선 “아니 검사의 논고가 옳고, 변호인의 주장은 아모 소용도 없어.” 이런 심리상태인 데야 더욱 말할 나위도 없었다.

고 한 말에 잘 드러나 있다. 또 이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나」의 아내가 하는

15) 蔡萬植은 1946년 4월 20일에 있던 한 문인들의 모임에서 「나의 죄」를 쓰려 했으나 주저되어 쓰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그러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創作合評會”, 『新文學』1권 2호(1946. 6)

말이나 그에 대한 주인공의 느낌을 말한,

“당신, 죄지셨잖아요? 그 죄, 자신 채 그대로, 저생 가시구퍼요?”
 안해가 나를 죄인이라 부르는 처음이었다. 그는 울면서 그 말을 하였다.
 나를 죄인이 아니라 여기려고 아니하는 이 낯아빠진 안해가, 나는 존경스럽고 고마웠다.

고 한 구절은 최종적으로 주인공이 자신을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의문의 여지없는 한 편의 참회문학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작가가 하고자 한 말이 거기서 끝나고 있지는 않다. 작가는 그 참회의 틈을 타 곳곳에서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고 어쩌면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작가가 사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박에 쫓긴 데다 이 변명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런데 주의 깊게 읽어보면 작가의 변명은 李光洙의 그것과 같은 졸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정연한 조리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이다. 작가의 변명은 대략 대여섯 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對日協力を 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이 해방 직전의 주인공의 형편에 대해

나의 고향집에는 80 넘은 노모와 60의 장형 내외가 있었다. 거기에는 나에게 딸린 가솔이 넷.
 이 여덟 식구를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만 하였다.

고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작가의 실제 형편 그대로를 말한 것이다. 주인공은 앞서 언급한 <女人戰記>를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보다 조금 앞서 매일신보에다 연재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 있었다. 검열이, 신문사의 편집자를 시켜 작자에게 다짐을 요구하였다. 반드시 시국적인 소설이어야 할 것과, 소설의 경계를 미리 제출할 것과, 그 경계대로 충실히 써나갈 것 등속의 다짐이었다.
 유일한 생화(生貨)가 그 때나 지금이나 매문(賣文)이요, 매문을 아니하고는 2합 2작의 배급쌀조차 팔 길이 없는 철빈…… 요구대로 다짐을 두고 쓰기를 시작하였다.

이 말은 작가 자신의 조금도 가감 없는 사정 그대로였을 것이다. 그가 이미 1939년에 자신의 소설쓰기라는 것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하지 못하는 「文筆 장난」이라고 말하고 최소한의 농지만 있어도 그 것을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데서도¹⁶⁾ 그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작가는 주인공의 입을 통해 그가 할 수만 있었다면 對日協力を 하지 않으려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곧 당국이 주인공에게 對日協力の 인 강연을 하라고 했을 때 그는 일어가 서툴러 못한다, 연단에 서 본 경험이 없어 못한다고 했으나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많은 수효의 영리한 사람들이 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일본 사람을 따랐다.

역시 적지 아니한 수효의 사람이 꺾박을 받을 용기가 없어 일본 사람에게 복종하였다.

복종이 싫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외국으로 달리어 민족해방의 투쟁을 하였다. 더 용맹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망명도 않고 지하로 숨어 다니면서 꾸준히 투쟁을 하였다.

용맹하지도 못한 동시에 영리하지도 못한 나는 결국 본심도 아니면서 겉으로 복종이나 하는 용렬하고 나약한 지아비의 부류에 들고 만 것이었다.

고 한 대문은 작가 자신이 애국투사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사람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복종이 자신만이 아닌 나라 잃은 백성 보편의 것이었다고 말한다.

-前略- 오직 저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까지 밖에는 궁리가 뚫리지 못한 것은 적실히 나의 약하고 용렬한 사람 됨됨이의 시킴이었음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만이 유독 그렇게 약하고 용렬하였는지, 혹은 대체가 개인적이며 소극적이며 퇴영적이기가 쉬운 망국민족의 본성의 소치였는지 그 분간은 막시 모르되, 하여커나 것처럼 약하고 용렬하였던 것이 사실이요, 겸하여 무가내한 노릇이었다.

위와 같은 말은 자칫, 힘 없는 백성이 살려고 하다 보니 강권을 휘두르는

16) 蔡萬植, “鐵條網” 『每日新報』, 1939. 12. 10.

異民族의 통치에 굴복한 것은 주권을 빼앗긴,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나라의 책임이 아니었던냐는 말로 오해될 소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일말의 진실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에 이어 작가가 이번에는 출판사 사장의 말을 통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소위 그 對日協力 행위의 효용과 관련된 것이다. 김 사장은

“-前略- 지원병이나 학병두 역시 같은 대답일 것이구…… 도대체가 당년의 조선 사람들이, 더우기 청년들이 대일협력을 하구 땀기는 지도자관 위인들이 하는 소릴 신용을 한 줄 아나? 신용은 고사요, 자네 말따나 개도야지만 두 못 알았더라네. 그런 지도자 명색들의 말을 듣구서 공출을 했을 게 어딴으며, 지원병이니 학병이니 나갔을 게 어딴어? 왜놈이나 공관리들의 강제에 못이겨 했기 아니면, 저이는 저이대루 호신지책으루 한 거지.”

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이 그러했을지라도 이런 말은 제대로 된 변명이라 할 수 없다.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근본적인, 용납할 수 없는 죄인 이상 효용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한 쪽에서 할 말이 못되겠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어 자신이 한 對日協力 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던가를 말하고 있다. 특히 강연이 끝난 다음 은밀히 주인공을 찾아와 정말 징병이나 학병으로 끌려나가 개주검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마음에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의 심경을 말한,

나는 목마른 젊은이들이 바라는 한 그릇의 시원한 냉수를 주는 대신, 그런 친일파의 괴설을 빌어 결국 한 숟갈의 쓰디쓴 소태를 주고 만 셈이었다.
뼈다귀가 부러지거나 골병이 들도록 늑신 물매를 맞느니보다도 더 아픈 마음을 안고 사관으로 돌아가 누웠다.

한 구절 같은 데서는 그 심적 고통, 자괴감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아무래도 그것이 그의 진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한 청년이 다시 그러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를 찾아와 징병·학병에 대해 물었을 때, “되도록 나가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라고 하고 있는 장면은 감동적이기까지 한 것이다.

이 소설에는 그와 같은 고통은 작가가 어용적인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도 받았음이 나타나 있다. 주인공은 신문연재소설을 쓰는 동안 다음과 같은, 작가로서 참기 어려운 수모를 당한다.

쓰면서 가끔 배신(背信)을 하다가, 두어 차례나 불러들어가 검열관 -퇴직 순검한테 꾸지람도 듣고, 문학 강의도 듣고 하였다. 잘하나 못하나 20년 소설을 썼다는 자가 늙마에 와서 순검한테 문학 강의 일석을 듣고……
그러나 일변 생각하면 받아 쓴 욕이었다.

蔡萬植은 <民族의 罪人>에서 자신이 이렇다 할 생계대책도 없이 고향으로 내려간 것도 그 對日協力이라는 것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 자기혐오를 견디지 못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다.

작가는 여기에 덧붙여 자신에 대한 변명을 곁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소위 「깨끗한 사람들」에 대해 한 마디 항변을 하고 있다. 주인공의 친구는 그 깨끗한 사람들이 민족을 배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을 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이상 그 지조란 것도 그 硬度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를, 「미시협」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윤과 같은 사람이 깨끗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생계 걱정을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그것은 「황재한 결백」으로 자랑거리가 될 것이 못된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蔡萬植이 <民族의 罪人>에서 한 자신의 對日協力에 대한 변명을 살펴보았거니와 거기에는 그러한 행위가 별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는 등 어설픈 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고 하고 있는 곳, 거기서 받은 정신적 갈등과 고통을 말한 대목은 상당한 호소력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작가는 이 소설에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사정은 있었지만 그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여기서 그의 진실을 대할 수 있고 또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蔡萬植의 <民族의 罪人>을, 사람들이 그의 참회소설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가 어이 없게도 독자를 설득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 李光洙의 <꿈>¹⁷⁾과 대조해 보면 前者가 얼마나 더 진실성을 가진 것인가

를 알 수 있다. 李光洙는 이 소설에서 調信이란 한 중이 꿈 속에서 사랑의 도피행과 살인 등 온갖 극절을 겪은 끝에 처형을 당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그는 이 소설을 통해 인간사 다 꿈 같은 것이니 지난 일 모두 잊어버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金東仁 같은 사람은 이를 두고 참회록 아닌 또 한 번의 배신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¹⁸⁾ 蔡萬植의 <民族的 罪人>은 그와 달리 죄 지은 사람의 거짓 없는 참회의 글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李光洙나 崔南善처럼 구명을 위한 꾀변을 내놓지 않은 작가라는 말도¹⁹⁾ 나오게 된 것이다.

<民族的 罪人>에도 한계는 있다. 무엇보다 자기 일신만 생각하려는 조카에게 훈시를 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이 소설은 어떤 새로운 윤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²⁰⁾ 이는 정확한 지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악몽과 같은 민족수난의 세월을 지나 이만한 참회문학 작품이라도 나왔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고 유일하게 그러한 소설을 쓴 작가 蔡萬植은 韓國 문단의 양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結 論

1970년대 이후 蔡萬植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그 대부분이 이 작가가 日帝 치하에 발표한 諷刺小說에 대한 것이었다. 4반세기 동안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 蔡萬植과 그 문학에 대한 연구가 어떤 특정 시기, 특정한 성격의 작품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와 그의 문학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와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의 시각을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

17) 이 소설은 1947년 6월에 발표된 것이다. 이 소설에 대해서 당시 많은 지식인이 비난을 퍼부었다 한다. 김상선, op.cit., p.422.

18) 金東仁, “春園의 ‘나’”, 『新天地』 1948년 3월호, pp.119~122.

19) 李注衡, “蔡萬植의 生涯와 作品 世界”, 『蔡萬植 全集』10(창작과 비평사, 1989), p.629.

20) 김상선, op.cit., p.407.

를 느껴 우선 해방 후의 그의 자전적 소설 <民族의 罪人>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와 그의 문학의 실상을 밝혀 주는데 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民族의 罪人>은 작가 자신의 日帝 치하에서의 對日協力에 대한 참회와 자기 변명을 겸한 소설이다. 이 소설의 위의 두 측면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작가는 그 자신임이 분명한 주인공의 입을 통해 자신이 對日協力的인 강연을 하고 다닌 것을 털어 놓고 있다. 그런데 李光洙 등 다른 사람들이 해방 후 그들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꾀변을 늘어 놓고 그들의 죄과에 대한 징벌을 모면하려는 의도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반해 蔡萬植은 자신의 과오를 숨김 없이 드러내 말하고 자신이 변명의 여지 없는 죄인임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할 수 있다.

蔡萬植은 日帝 치하에서 자신이 두 편의 對日協力的인 御用小説을 썼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의, 자신에 대한 엄한 면모와 결벽증이라 할 만한 정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그가 쓴 對日協力的인 소설 <女人戰記>는 친일적인 의도가 뚜렷한, 다른 작가의 御用小説과는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에 대해 한 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이 소설은 그에 앞서 작가가 『朝光』에 연재하다 日帝 당국의 검열로 게재가 중단된, 한 韓國 여성의 고난에 찬 반생을 그리려 한 <어머니>를 개작한 것으로 그 내용의 3분의 1 이상이 <어머니>의 것을 그대로 轉載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원고료를 얻기 위해 미완의 前作 <어머니>에 검열당국의 주문에 응하는 對日協力的인 語句를 삽입하고 상황을 설정해 쓴 것이 <女人戰記>인 것이다. 그러므로 <女人戰記>는 對日協력을 위한 소설이 아닌, 생계를 위해 하는 수 없이 對日協력을 한 소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작가는 <民族의 罪人>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총력연맹의 요구에 따라 산업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御用的인 「증산소설」을 썼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모를 일을 실토한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결백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작가는 <民族의 罪人>에서 자신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한 죄인에게 있었던, 자기변명의 성격을 띤 당시 그의 사정과 심경을 말하고

있다. 거기서 그는 첫째, 자신이 對日協力的인 소설을 쓴 것은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작가는 자신이 한 강연·문필활동 등 對日協力的인 행위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견디기 힘든 심적 갈등과 고통을 준 것이었다고 하고 있다. 작가의 변명 중에는 그러한 對日協力 행위가 韓民族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는 등 모순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서 그의 진실을 읽을 수 있어 독자의 共感을 사고 있다. 이 또한 자기 구명을 위한 궤변을 늘어놓은 李光洙 등 다른 친일행위를 한 사람들과는 다른, 그의 진실된 면모라 해야 할 것이다.

이상 여러 가지를 종합하건대 <民族의 罪人>은 日帝 시대에 對日協力, 친일행위를 한 많은 문인들 중 蔡萬植만이 쓸 수 있었고 또 쓴, 양심적이고 진실한 참회문학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